

모두가 따지 말라고 말리던 컴활1급, 절 취업시켜 줬습니다!

고충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보다 어려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최근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대학생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은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필수적인 자격증을 얻기 위해 공부에 매달리죠. 그러한 대표적인 자격증은 한글 문서에 유용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엑셀 작업에 유용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입니다. 2015년에 군 복무를 마친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복학한 뒤,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맨 먼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합격했죠. 인터넷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심자 코스'라고 불릴 만큼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취득할 자격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심 끝에 목표로 삼은 것이 <컴퓨터활용능력>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이 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급수' 선택이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증의 급수는 1급과 2급 자격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급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합격률도 40~50% 수준으로 조금만 정성을 들여 공부하면 절반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2급 자격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1급은 필기 합격률도 20%대에 머물며 특히 실기 합격률은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기에 액세스라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야 하니 2급에 비해서 체감되는 난이도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불릴까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망설임과 결단 사이에서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저는 어렵지만 1급에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어려운 것에 비해 득이 없다'며 말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게 어렵다고 피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운 취업은 어찌게?" 무엇보다 이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시험의 난이도가 어떤지 잘 몰랐지만 열심히 하려는 저에게 '자격증을 따려면 당연히 1급을 따야지!'라며 강하게 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컴퓨터활용능력 1급 도전. 예상대로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필기합격도 간신히 했고 이후 실기공부에 돌입하자 그야말로 난감. 50자가 넘는 엑셀수식 작성, 듣도 보도 못한 액세스 프로그램 활용 등등 요즘 흔히 나도는 말로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1급 필기까지 통과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실기 하나만 앞두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까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간 노력한 성과가 '도르아 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생각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2번 낙방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떨어질 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보니 새로운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2번째 시험에서 저는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지만 오히려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다 할까요? 떨어진 후 떨어진 이유를 찾아 그 취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 끝에 저는 마침내 3번째 시험에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에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3번 만에 합격되어 더욱 기뻐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난한 2급에 도전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그 성취감에 저는 더 부듯했습니다.

공무원 공채 합격의 기쁨으로 돌아오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에 실시된 제7회 경기도 공무원 공채 시험. 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대사항, 즉 가산점 분야에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렵게 도전한 자격증이 저에게 이렇게 보답할 줄이야. 덕분에 저는 서류 전형 을 무난히 통과하였고 이후 최종 면접시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면접 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2급으로 취득하던데... 본인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라... 그 어려운 것을 취득하셨으니 업무도 수월하게 잘 하시겠군요.” 이런 대화가 오고간 면접에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실시된 공무원 공채 과정에서 합격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가산점 1%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한 가산점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자격증인 만큼 가치있는 검증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